

韓國林業의 나아갈 길

趙 泰 膺

韓國林學會理事

今日 韓國林學會創立20週年을 맞이하여 第20回定期總會의 榮光스러운 이 자리에서 淺學非才인 不肖小生으로 하여금 分에 넘치는 林學會賞을 받게하여 주신데 對하여 지로써는 實로 意外인 同時 그자 감사와 감격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제 나이가 稀年을 지난지 7年, 이미 77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年初에 當局이 發表한 우리나라의 男子平均壽命이 66세 좀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나이를 다 살아버리고 오늘까지 벌써 남의 나이를 자그만치 11年이나 덤으로 살아오고 있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孔子님이 六十而耳順이라고 말한 뜻을 조금은 깨닫게되어 벌써부터 모처럼 얻게된 暇人生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봉사하려고 좀더 배우고 알려고 하였으나 원체 鈍才라 林業에 功獻된 바 없이 지나게 된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나던중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오로지 先輩님과 學會同志諸位의 格別하신 配慮의 惠澤으로 아음고 眞心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本人의 心情을 솔직히 吐露할 것 같으면 人生의 黃昏에 접어드는 人間은 절망의 위기 앞에 서기쉬운 것이 피치못할 사실인 듯 합니다. 이런때 일수록 사람은 무언가에 몰두하고 열중하지 않으면 쉽사리 자신의 남은 삶의 시간을 죽음앞에 고스란히 바치게될 可能性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들때가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餘生을 더욱 뜻있게 의롭지않게 살아야한다는 강박감으로 서로 잡히게 될 때 過去의 經驗을 살려 더욱 努力하고 일에 열중하면 나도 이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될 때 老年의 소외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아닐까 하는 信念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하여 이 늙은이의 소외감을 完全解消케 하여 주시는 同時 더욱 勇氣와 激勵을 북돋아 주신데 對하여 다시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講演題目이 「한국임업의 나아갈 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林學會에서 指定하여 주신 테마로 크게 생각하면 其範圍內容이 廣大하여 사양코저 하였으나 모처럼 얻은 기회도 되어 恒時는

꺼오던 중에서 몇가지만 들어 여러분들의 同意를 얻게된다면 多幸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한국임업의 나아갈 길

○ 人工造林은 蠶에서 質로 轉換할 수 없는가?

지난 1978年은 제 1次治山綠化 10個年 計劃을 4年이나 앞당겨 完了케된 成果도 있어 한국임업의 發展을 于先 敬하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滿足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解放後只今까지 植樹實績을 볼 때 年年增加一路를 걸어 왔으며 今年까지 百億本이 넘게 심어진 나무는 어디로 갔는가하고 呼訴하고 싶은 心情 간절하다. 今春 植樹될 本數만 하더라도 자그만치 3億 200餘萬本, 面積으로 18萬陌으로 알고 있다. 造林事業은 永久的事業이라 없어질 性質은 아니라 할지라도 當局이 發表하는 植樹와 現實이 符合되지 않는 것을 否認할 수 없기 때문이다.

當局의 統計로 보아 解放以後 1946年~1973년까지 植樹本數가 93億 4千萬本 植樹面積이 363萬餘陌로 總林野面積 670餘萬陌의 50% 以上 造林이 完了되었다고 할 수 있다. 現在外面으로 보아 적어도 250餘萬陌에는 10年生 以上の 成林地가 있어야만 되었는데 調查統計를 얻지 못하여 正確히 말할 수는 없으나 一部特殊地域을 除外하고는 쉽게 눈에 띄이지 않는것은 누구나 認定되는 事實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原因은 植樹要領의 不足과 事後管理가 如意치 않은데에서 오는것이 아닌가한다. 國·公有林을 제쳐놓고라도 林野全面積의 70%나 되는 私有林의 事後管理가 徹底히 되도록하는 對策이 早速實現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私有林 所有者別 面積을 볼 때에 1陌未滿이 50%, 2~5陌 35% 程度로 大部分이 零細山主에다가 不在山主가 많은 關係等을 생각할 때 今後植樹後 비료를 준다, 풀을 깎는다, 補植을 실시한다, 가지치기, 除伐, 間伐等을 해야만 되는 育林作業을 只今 形便으로 果然 山主에게 맡길 수 있을까? 나는 疑問이

* 편집자註: 本稿는 1979年 2月 16日 第20回 定期總會時에 發表한 1979年度 韓國林學會賞 受賞者의 講演文의 要旨이다.

		조 립 실 적 표				면적 : ha 수량 : 1,000本	
시 대	연 대	國 有 林		私 有 林		計	
		면 적	수 량	면 적	수 량	면 적	수 량
美 軍 政	1946~1948	12,252	26,017	93,430	254,409	105,682	280,426
大韓民國 初期	1949~1960	20,756	46,712	1,678,366	3,919,600	1,699,122	3,966,312
5·16軍事革命以後	1961~1966	43,389	104,214	663,832	1,627,326	707,221	1,731,540
計		76,397	176,943	2,435,628	5,801,335	2,512,025	5,978,278
山林廳開廳以後	1967~1973	80,447	243,240	1,038,423	3,124,630	1,118,870	3,367,870
合 計		156,844	420,183	3,474,051	8,925,965	3,630,895	9,346,148

다. 多幸히 三年前에 「育林의 날」이 制定이 되었다고 하지만 도대체 育林이란 무엇인가를 實際로 體得하고 있는 國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亦是 疑問이다. 「育林의 날」 行事を 볼때 日淺한 관계도 있다고 하겠으나 愛林思想에 투철하여 眞心으로 나무를 가꾸려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年初 山林廳長의 新年辭에서도 汎國民植樹運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發表하였는데 廳長이 바라는 植樹할 수 있는 國民이 過然 얼마나 될가하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動員되는 사람의 數보다 꼭 살려 심을 수 있는 方法을 講究해야만 되지않을가 한다.

나는 여기에서 恒時念頭에 두고 있는 것은 山林組合과 部落山林契가 植樹와 育林에 앞장서도록 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前述한 바와같이 70% 以上 廣大한 私有林의 所有條件下에서는 山主의 自發的參與만 기다리서는 每年浪費만 거듭하게 될 것이고 過去는 그지없는 價値의 損失이자 徒勞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각성하여 全國民이 植樹나 育林이 生活化될때까지 今後 5년이요 10년이 걸리더라도 山林契의 活躍에 依하여 遂行되도록 組織強化를 圖謀하는 同時 이를 成就하기 爲하여서는 郡山林組合의 機能을 充分發揮케 하여 各山林契指導育成에 全力을 傾注하게 되기를 要請하는 바이다. 山林組合의 構成分子인 山林契는 1951年 9월에 公布된 山林保護臨時措置法에 最하여 發足된 것으로 公法化된 動機는 韓國의 林業을 民主化로 誘導하기 爲하여서는 舊態依然한 官의 指導力만 가지고서는 即 權力政治로서는 實現不可能하다고 看破케된 나머지 案出게 된것으로 契의 目的은 區域內山林所有者와 居民이 一致團結 協同精神을 發揮케 하여 郷土綠化를 自主的으로 實踐守護해 나가는데 있었던 것이다. 自己郷土植樹에 앞장서야할 山林契가 過然얼마나 責任을지고 活動하는가 나는 疑問이며 山林契指導機關인 山林組合이 契發展과 向上을

爲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또한 의문되는 바이다.

願컨대 今後山林組合은 林業技術者를 더욱 確保케하여 植樹와 事後管理에 앞장서 指導할 수 있는 體系로 整립케 되기를 바라는 同時 不在山主는 勿論 植樹, 保護管理의 能力이 없는 林野는 山主의 希望을 기다리기 前에 山林組合이 自進調査케 하여 分收造林 또는 受託造林으로 勸獎擴大케 되기를 強調코자 하는 바이다.

山組는 政府林業施策의 代行者이며 協助者인 만큼 技術指導員確保等에 政府로써는 特別의 援助가 있어 마땅한 줄로 믿는 바이다. 數年前 郡山主大會에 出席하였을 때의 進行狀況으로부터 形式的인 命令과 指示만으로 끝나는 會合이라 山主의 意思가 반영될 수 없으며 官의 方針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가 의문이 었다. 千偏一律的인 行事を 止揚하고 좀더 山主와 密着할 수 있는 方向으로 바꾸어 나갈 수는 없을까? 私有林 造林計劃을 主管하는 郡에 對하여 呼訴하고 싶은 것은 造林用苗木은 山主意思가 正當하면 要求하는 대로 配付토록 하여달라는 것이다.

昨年 造林時 直接 當한것으로 所有林地의 立地條件을 고려하여 잣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要求하였던바 經濟林造成을 爲主로 하기 때문에 리기다 소나무 植樹는 全部中止되어 苗木이 없다는 것이었다. 中腹以上山頂部로 土壤이 瘠薄하고 裸地에 가까운 林地로서 리기다 外에는 成功可能性이 稀薄하여 잣나무는 適樹가 아닌 데도 不拘하고 強要케되는 事例로 보아 末端林業公務員의 無定見한 指導와 處事는 民主林業發展에 阻害가 되는 原因의 하나로 速히 是正되야만 할 문제라고 認定되는 바이다.

이 機會에 林政當局에 進言코자 하는것은 리기다소 나무를 造林樹種에서 除外하다 싶이된 其理由가 어데 있는지? 本人으로써는 經濟樹種만 따질것이 아니라 砂防造林을 爲始하여 瘠瘠한 土地에 造成할 針葉樹는 리기다外에는 適樹가 거의 없다고 斷言하고 싶다. 一線林業公務員의 리기다 無用觀念이 是正되기를 기대하

여 마치 않는다.

○ 山地砂防의 回顧와 現在

山林政策中 荒廢地復舊事業 即砂防事業만큼 迂餘曲折이 많았던 事業도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變遷된 過去를 暫時 回顧할 때 1956年 2月 砂防事業諮問委員會에서 當局이 提示한 要砂防面積이 解放前(1945年)에 165,000陌(38以北포함)던것이 其後調査한 結果 1947年 3月末 現在 444,769陌로 一躍 約 3倍로 增加케 되었다. 5年後인 1952年 7月末 現在 5大江流域(漢江, 錦江, 滄津江, 洛東江, 榮山江)만 먼저 調査된 面積이 또 늘게 되어 461,653陌로 불어나게 되었으며 5大江 流域外 황폐지 面積이 調査結果 2年後인 1954年 12月末 現在로 231,071陌가 되어 결국 5大江 流域分과 流域外를 合하던 總面積 692,724陌로 解放直前에 比하여 10年後 每年 15%의 級數學的으로 增加하였는데 1955年 現在로 砂防實行面積은 不過 37,158陌 밖에되지 않아 萬一 이 정도로 진행된다면 百年河清格으로 187년이 요하게 된다는데에 林政當局은 腐心焦思한 나머지 當時砂防事業諮問委員會에 對하여 每年增加되는 荒廢地를 早速히 解決해야만 되겠는데 廣大한 面積을 正式으로 從前과 같이 하려면 莫大한 經費調達을 要케되므로 貧困한 國庫財政은 支出할 能力이 없으므로 經費를 들이지 않고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工法을 案出하여 달라는 要請이었으나 技術發揮나 經費節約에도 限界가 있는 것으로 妙案이 發見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當時委員會에 本人도 參與케되어 無謀하고 허황된 計劃임을 痛駁하였으나 束手無策으로 短期綠化를 내세우고 實施面積을 擴張하여 荒廢地征服을 꾀하는 過剩意慾으로 經費의 뒷받침없이 實行하자니 自然 簡易砂防으로 插楹을 爲主로 施工케 된 것은 다아는 事實이다. 2年後인 1957年 부터는 所謂「上流水源涵養事業」(upper watershed management project)이라는 名目으로 援助當局의 財政과 技術援助로 全國에 實演區 20개소를 設定케 되었는데 其結果도 確認하기 前에 다음해인 1958년부터 全國的으로 大面積에 걸쳐 實施케 하였던 것이다. 同當 施工單費 不過 4~5千圓 정도로 實行케 하였으므로 基礎工事等으로 採用될 土木的 技術을 發揮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播植만하는 이 工事を 所謂 新工法이라고 널리 알리기 爲하여 1959年 11月 11日 砂防事業促進全國大會를 京畿道始興郡東面에서 李承晚大統領參席下에 舉行되었던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當時 三府要人은 워시하여 外國使節團 各道知事, 各大學總長, 各機關長, 學生, 軍人等 各界 各層을 總網羅하여 2千餘名 參席下

에 盛大한 行事로 進行되었던 것이 아직도 記憶에 남아있다.

當時 新工法이라 내세워 자랑하는 것은 工費가 從前의 20% 以內로 經費가 低廉하다는 것, 男女老少를 莫論하고 國民全體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것, 황폐라지에 對하여 短時日內에 地被物造成이 可能하다는 것이었다. 그래부터 要砂防面積 639,559陌를 4~5年內에 完了豫定으로 每年 15萬餘陌式 實行케하고 總經費 22億 4千餘萬圓(舊貨 224億 6千萬圓)을 策定케 되었던 것이다.

莫大한 努力을 供給하기 爲하여 山林契砂防이나 學生砂防, 軍人砂防, 公務員砂防, 심지어는 各職場別砂防까지 動員케 하였으나 一年이 못되어 計劃대로 되지 않아 中斷케 되었던 것은 一種의 年센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실시케된 上流水源涵養事業은 工費의 制約을 받는 관계로 插楹을 主體로한 工事이므로 溪間工事는 勿論 山腹工事의 土木的 基礎工事까지 一切中斷케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砂防事業의 存在조차 亡失케 된것은 이때부터였다고 본다. 非科學的이고 無謀한 施工으로 因한 拙速의 被害와 浪費의 損失을 들어 當務責任者들에게 早速是正되기를 促求하였으나 馬耳東風으로 계속되었으며 한편으로는 補修砂防地가 늘어나게 되었다.

1963年度에 이르러 殘存要砂防面積이 37萬 7千陌로 둔감되어(이 面積은 當時 當국 發表에 依하면 5大江流域內外分 69萬2千7百餘陌에서 1962年度까지 實行面積 24萬1千8百餘陌를 減한 殘量 45萬餘陌보다 적은 것은 再調査 結果 7萬 3千餘陌가 自然減少케 된 것임)이 巨大한 面積을 성급하게도 1年에 完遂할 豫定으로 進行코저 하였으나 無定見하고 無謀한 計劃이라 우리나라 實情으로는 實行不可能한 것으로 결국 翌年으로 이월케되어 砂防事業은 速決過慾과 拙速施工이 反覆되던中 1964년에는 全部完了되야만 할것인데 1966年度에 이르러 또다시 治山 7個年計劃으로 山地砂防 8萬 4千餘陌로 發表된 것을 보니 當局의 황폐지 面積統計數字는 고무줄과 같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이 自由自在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解放後林業人은 勿論 山林에 關心을 가진 人士들은 近 20年동안 山林行政機構의 獨立昇格이 있었는데 1967年初 山林廳이 發足케 되었던 것이다. 獨立機構로 當初 目標인 部로 되지 못한것이 유감될마 없지 않았으나 이것이 앞으로 다시금 跳躍할 수 있는 節次로 알고 同慶하여 마치 않았으며 새로 發足된 山林廳에 對하여 期待한마도 至大하였다. 그러나 發足當年山林廳豫算規模를 볼 때 기대와는 달리 從前과 같은 形式的인 行政

手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砂防事業에 대하여 무언가 勇斷이 있으리라고 믿었지만 豫算에 반영된 것을 볼 때 如前히 播植을 爲主로 한 山腹工事置重인 不安定한 一時的 砂防을 脫皮치 못한 것을 매우 遺憾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砂防工事에 對한 國民認識이 砂防은 技術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砂防技術者의 存在라 할까 權威는 아주 추락되었으며 砂防職員中에서도 將來有望한 新進技術者는 勿論 老練된 技術者는 物心兩面으로 待遇關係를 考慮하여 他方面으로 轉職하는 職員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砂防職員으로 轉職되는 것을 左遷보다도 심한말로 교도소에 가는 것과 같이 林業公務員들의 醜評이었다는 것을 回顧할 때 倭政時代와는 正反對 現상이었던 것이다. 砂防의 受難時代는 계속되어 技術은 제치놓고 豫算에 틀어 맞추는 砂防, 돈에 제약은 받는 設計, 거기다가 大部分 賦役에 가까운 실행이기 때문에 正當한 砂防工事가 完遂될리 萬無하여 먼저 實施된 地域의 補修砂防이나 再砂防이라는 工事가 계속 發生케되자 不得已 늦게나마 1965年 頃부터 是正의 段階로 옮기게 되어 若干의 溪間工事와 山腹工事의 基礎工事가 採用되기 始作한 것은 山林廳發足前後부터 끝나아지기 始作한 것이다.

내가 當時 實施된 京畿道楊州郡長與面橋峴里(漢江支流) 砂防實施狀況을 보았을 때에 느낀바는 溪間山腹併施된 工事로 從前보다 基礎工事가 많이 採用되었다고 하지만 陌當單費 7萬4千원으로 亦是工費制限으로 完全한 施工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植식상태로 보아 完全한 工事가 되려면 20萬원이라는 約 3배에 가까운 投資가 要望되는 場所로 이전에 比하면 많이 進歩된 工法이라고는 할 수 있었다.

每年 過剩意慾으로 施工面積을 縮少치 못하고 經費에 制約을 받게되어 正常的인 砂防을 보지 못하고 억지로 계속하여 오던中 1973年 3月 意外로 山林廳이 內務部로 移管게되어 林業人은 常識外的 行政措置로 의아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農과 林은 一身同體로 알았으며 林은 農사的一部分로 알았는데 農과 나무가 동떨어지면 農사나 나무가 잘될까 하여 林業人뿐 아니라 一般人士까지도 歡迎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一部에서는 농림부가 無能하여 농수산부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內務部로 移管된 後 從前에 보지못한 改革에 가까운 治山綠化 10個年計劃을 發表케 되었는데 當時 砂防事業實施計劃에 依하여 決定된 바로는 待望中이던 單費가 變更되어 山地砂防 1陌當 平均 一般砂防이 50餘萬원 特殊砂防이 100餘萬원으로 增額케 되어 從前에

없던 一大 勇斷으로 砂防事業의 將來를 爲하여 매우 多幸한 일이라고 生覺되었으며 前年의 山地砂防陌當 16萬원에 比할때 적지않은 增額으로 正常的인 砂防本軌道를 前進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고보니 山林廳이 內務部로 좀더 速히 移管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던 것이다. 砂防分野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斷이 없이 많은 變遷과 어려움이 反覆되는 가운데 近年에와서 長足の 發展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國上保全을 爲하여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仄關된 바에 低하면 今年度砂防事業費가 166億餘원으로 山地砂防實施面積 5,300餘陌 單費 特殊砂防 332萬원, 一般砂防이 178萬원으로 溪間과 山腹의 基礎工事가 技術的으로 不足함이 없이 實施케 되었다는 것은 過去를 생각할 때 隔世의 感이 없지않아 매우 기쁜 現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알기에는 解放前부터 뒤로 미루기만 하고 손도 대보지 못하였던 慶北 영일지구의 難工事를 數年前成功裡에 完遂케되어 砂防技術陣의 凱歌를 울리게 되었다는 것은 實로 讚揚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一般國民의 認識도 달라지게 되었으며 砂防技術者의 存在도 다시 蘇生케 되어가고 있는 事實은 참으로 감명깊게 생각되는 바이다. 영일지구는 泥岩地帶로 土壤은 大部分이 表土가 3~5cm에 不過하며 건조하고 保水力이 弱한 貧瘠土壤에다 植식이 甚하고 土質은 積弱하여 植生成長이 不良할뿐 아니라 土層은 縱龜裂이 全히없는 橫龜裂인 水平堆積層으로 降水의 滲透力과 地下水分의 上昇이 極히 적은 狀態로서 植生의 뿌리는 地表에 따라 伸長되며 表土流失되면 露出되는 경우가 많은 土壤으로 극히 微細한 粒子로 輕鬆하여 風水에 依하여 飛散流失되기가 쉽다.

이러한 特殊地域에 對하여 先 植樹와 地被物造成에 成功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對하여 특히 強調하고 싶은것은 나의 播種에 對한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地帶의 復舊가 一時的으로 그치고 永續性이 없는 다시말하여 過去의 모습으로 變케 될 憂慮가 多分히 潛在하여 있다고 認定이 되므로 他地域보다 事後管理에 一層主力케 할 必要가 있다고 痛感케 된다.

모든 植物의 立地條件이 不良한데다가 劣患한 土壤이므로 地力이 保有될 때까지 肥培管理에 對한 投資를 長期에 걸쳐 實行케 하여 現存植生이 定着되어 自力更生이 成立된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금 強調하고 싶다. 우리나라 砂防事業도 이제부터 次元이 다른 새로운 實態로 前進的인 變革을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 豫防砂防의 對策

過去 豪雨로 인한 山沙汰被害를 回顧할 때 1962年 8月 順天, 昇州地區의 慘變이던가 1972年 8月 서울市內 平倉洞 豪雨被害, 再昨年 7月에 있었던 안양, 시흥地區 集中豪雨로 인한 慘狀等을 事前에 豫防할 수 있을까? 速히 研究檢討될 問題라고 믿는 바이다. 外觀上으로는 成林地로 되어있으나 溪間을 踏査할 것 같으면 意外로 浸蝕溪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山脚이 不安定하고 浸蝕進行中으로 將來崩決潰 또는 地落等 發生으로 큰 被害를 惹起케 할 徵候가 認定되는 地域을 爲始하여 過去山腹工事專行地域으로 溪間, 山腹基礎工事가 省略된 地域等도 放任되시는 不慮것으로 早速히 이에 對한 對策이 講究되야만 할것으로 믿는다. 施工에 있어서 特히 强調코자 하는 것은 土砂留止를 目的으로 溪間處理를 積極實施토록 할것이며 流域下流에는 砂防dam을 많이 設置되기를 冀望하는 바이다.

이것은 現實砂防에도 같이 適用될 問題로 發電 또는 水利를 兼한 多目的 dam의 生命을 永久保存케 할 뿐 아니라 洪水豫防과 水資源確保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豫防砂防의 適地 決定은 慎重을 期할 問題로 山沙汰 또는 土石流發生要因이 多種多樣하므로 溪岸의 崩決潰等危險地區 判斷技術이 確立되야만 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砂防技術이 解決해야만 될 問題이므로 이에 對備할 砂防技術者 養成도 時急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解放後 우리나라의 建築이나 其他一般土木은 刮目할 만큼 進步發展되었으며 海外에까지 人力輸出되고 있는 것에 比較할 때 砂防技術만은 踏步狀態로 있게 되었다는 것도 否認 못할 事實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既述한

마와같이 돈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賦役에 가까운 砂防을 20餘年 계속하였다는데에 其原因이 있으며 工事다운 工事を 못하였기 때문에 技術者 育成의 기회를 喪失케 되었다는 것을 원망하게 된다.

昨年 8月 林業試驗場 沈興洙副場長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제리아」에서 自己나라의 荒廢地復興計劃을 세워달라고 招請을 받고 다녀왔다는 消息은 우리나라 砂防技術이 海外에서까지 알려주게 되어 將次 砂防技術者가 海外進出될날도 멀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欣快한 마음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砂防事業은 天災地變等 不可抗力으로 發生되는 것을 考慮할 때 根絶될 수 없는 것으로 永續된 事業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本事業에 從事한 技術者確保에 一層 努力을 傾注해야만 될 重要한 問題로 其解決策은 먼저 物心兩面으로 待遇를 改善하는 路밖에 없다는 것을 强調하는 바이다.

그동안 砂防技術者의 動態를 살펴본 때 有能한 技術者는 停年으로 많이 退職케 되었으며 一部 補充된 人材中에서도 有望한 者는 待遇關係로 他處로 轉職하는 가 하면 林科를 卒業하고 求職하는 人物中에서도 砂防을 希望하는 人材가 적기 때문에 將次砂防事業遂行에 重大한 問題가 惹起되리라고 推察되는 바로 當局은 早速히 解決할 對策이 講究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기회에 添加하여 두고 싶은 것은 砂防技術者停年 時限은 一般公務員보다 10年以上 延長하는 것이 技術浪費를 막는 길이 아닐까 한다. 砂防技術은 1, 2년에 習得케 할 수 없는 것으로 多年 經驗된 人材를 한창 일할 나이에 退職케 한다는 것은 當事者는 勿論, 國家의으로도 큰 損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